

# **'21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

**(2021. 10. 22 / IR그룹)**

## 경영실적 1. 연결손익 종합 – 1 page

안녕하십니까, 국제금융실장 입니다.

당사의 2021년 3분기 잠정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결손익 종합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9조 1,515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사상 최대 매출액을 경신하였고, 영업이익은 1,485억원, 순이익은 69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3분기 매출은 석탄, 철스크랩 등 철강원료의 판매 증가와  
해외 무역법인들의 트레이딩 호조를 바탕으로 전분기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인건비 상승 소급분과 함께 인니팜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전분기비 12.6% 하락하였고,

순이익은 투자주식손상 602억원 등이 반영되어 69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손익 상세입니다.

## 경영실적 2. 연결손익 상세 - 2 page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6,2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석탄, 철스크랩 등 철강원료 판매량이 18% 증가와 무역법인의 트레이딩 호조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영업이익 1,485억원은  
본사 트레이딩, 무역법인 등에서 676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법인 373억원, 미얀마 가스전 436억원으로 구성됩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215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트레이딩 부문의 물류비 등 비용 부담 증가와 E-Sales 거래의 수익 하락, 그리고  
주요 투자법인인 인니팜의 계절적 수확량 감소가 주요 이유입니다.

영업외 손익에서  
순이자비용은 트레이딩 호조로 무역금융 비용이 소폭 증가한 166억원 이었고,  
관계기업 손익은 216억원 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스전 판매량 증가에 미얀마 육상가스관 이익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암바토비 광산은 가동률 증가와 니켈 가격 상승에 힘입어 19억원의  
지분법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투자주식 손상을 비롯하여 71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호주 나라브리 광산은 유연탄 매장량 중 일부에서 품질 저하 문제와  
암반층으로 인한 채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정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476억의 손상을 반영하였고,  
암바토비 또한 생산계획, 니켈가격 등을 반영한 공정가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126억원을 손상처리를 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미얀마 호텔과 관련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나,  
대규모 자산손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3 page

다음은 사업부별 주요 실적 및 전망입니다.

철강 사업부는 석탄, 철스크랩 등 철강원료 시황 상승 및 판매량 증가로 분기 매출 6조 846억원, 영업이익 57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탄소중립정책 대응으로 제철소의 스크랩 사용 비중이 올라가며 포스코향 철스크랩 판매를 확대하였으며, 안정적인 공급 체제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프리미엄 제품 마케팅을 강화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향 포스코 자동차 강판 판매량을 전분기비 11%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3분기 누계 철강판매량은 총 2,993만톤, 포스코산 판매량 721만톤으로 4분기 역시 견조한 판매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그룹사 일본지역의 수출채널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구조적 성장과 더불어, 전기강판 및 자동차강판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 E-Sales 강화 등 사업의 질적 성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3 page

에너지 사업부는 전분기 대비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량과 가격이 상승하며 매출 3,354억원, 영업이익 32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전분기비 2.5% 증가한 488억 입방피트를 판매하였고, 이에 영업이익은 전분기비 5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판매가격 상승과 투자비 회수 증가로 4분기에도 영업이익 증가가 전망되며, 연말에 계획된 미얀마 마하구조의 평가시추와 탐사시추는 스케줄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인도네시아 지역에 공동조사사업권 확보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해상 광구의 탐사권을 낙찰 받았으며, 향후 4년간 신규 가스층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동남아/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신규 E&P 사업을 추진하여 당사 에너지자산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성장 로드맵 페이지를 통해 에너지 사업의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4 page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식량소재 본부의 매출액은 3분기 1조 7,697억원, 영업이익 7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성장하였으나, 저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량사업은 불안정한 곡물시황과 물류비 상승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트레이딩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모빌리티 사업 역시 북미, 유럽과 같은 장거리 판매사업의 운임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며 계획보다 저조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모빌리티 사업은 수요가와 장기 거래를 통해 단가 협상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량 사업은 단순히 물량 확대를 도모하는 트레이딩을 축소하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조달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이와 연계한 비즈니스를 확대하여 수익성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양산체제 구축으로 올해 최대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인니 팜사업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여 팜유 정제 및 바이오디젤 사업 등 다운스트림 영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4 page

이어서, 무역법인 및 투자법인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법인은 글로벌 철강 시황 호조로 견조한 트레이딩을 보이며 매출 3조 1,331억원, 영업이익 19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의 철강 수요 증가와 판매가 상승으로 전분기비 매출은 2,327억원 증가, 영업이익은 2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투자법인은 3분기 매출 4,240억원, 영업이익 373억원의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포스코SPS는 철강재 판매가격 상승과 더불어 다시 한번, 분기 영업이익 100억원을 돌파하여 1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우즈백면방 역시 면사 판매가 상승 및 판매 호조로 11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인니팜 사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였지만, 팜유 시황 상승으로 12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 성장 로드맵 1. 핵심 사업 및 주요 성과 및 전망 – 5 page

다음은 회사 핵심사업들의 주요 성과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 SPS의 구동모터코아 판매 실적은 분기 26만 8천대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이는 올해 연간 판매 계획 수량의 66% 수준으로 다소 부진한 판매량이었는데, 이는 전세계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이 늘지 않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자동차 산업의 생산 안정이 SPS의 판매량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회사와 SPS는 지난 9월 중국 POS-CORE 1차 증자에 참여하였고, 내년 1분기 2차 증자를 통해 총 586억원의 투자를 마무리되면 POS-Core 지분은 회사가 54%, SPS가 20%로 확대되고, 중국내 생산능력이 90만대로 증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미 지역의 생산거점 구축을 검토 중에 있으며 22년 1분기 내에 투자결정이 완료될 것입니다.

## 성장 로드맵 1. 핵심 사업 및 주요 성과 및 전망 – 5 page

좌측 하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회사의 친환경차 부품 수주 내역입니다.

본사 모빌리티 사업실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체인 RIVIAN과  
구동력 전달의 핵심 부품인 하프샙프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주 금액과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억 2천4백만불 규모의 계약이며  
22년부터 6년간 하프샙프트를 공급하여, 아마존 물류 전용 VAN을 비롯해  
RIVIAN의 R1T 및 R1S 모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는 지난 20년 12월 RIVIAN과 410만불 규모의  
초도 오더를 성사시킨 후 이어진 두번째 수주로서,  
곧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파트너사와 함께  
견고한 파트너십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과입니다.

## 성장 로드맵 1. 핵심 사업 및 주요 성과 및 전망 – 5 page

오른쪽 상단은 회사의 포스코 제품 수출 추이입니다.

지난 2년간 그룹사 해외 수출 채널 통합의 성과들로 올해 2021년은 668만톤의 포스코재 수출을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본지역 통합으로 2022년에는 약 135만톤이 증가한 822만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하단의 인니팜 생산량 및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팜유 생산량의 계절성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팜유 생산은 3분기 저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후 반등하여 1분기 최대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팜유 사업은 지난 9월 친환경 국제인증인 RSPO를 취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지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사업들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 성장 로드맵 2. 에너지 사업 연계 미래 신사업 확장 – 6 page

다음은 회사의 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미래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사는 천연가스 보유매장량과 E&P 역량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룹사 수소경제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먼저, 미얀마가스전의 생산력 유지와 마하 가스전 사업개발 완수를 통해 안정적인 가스 생산량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탐사권을 취득한 말레이시아 해상광구와 인도네시아 지역 공동조사를 통해 중장기 매장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시를 통해 안내드린 호주 E&P전문회사 인수 검토와 같이 매장량이 확인된 안정적인 개발자산 취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지역은 육지에 위치한 천연가스층으로서 향후 이산화탄소 저장사업과 그룹사 블루수소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그룹의 LNG Captive 수요를 바탕으로 LNG 공급과 LNG 인프라 자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생수소 및 블루수소의 자원으로써 천연가스 취급량을 확대하고 그린수소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분기 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